

인도네시아에서 보내 드리는

1 월 선교편지

JAN 2, 2019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쳐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시 90 : 1 - 2)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2019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기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제 시작된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리며 2019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2019년 한 해 동안에도 인도네시아에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서부 솜바 지역 4개마을 35명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서솜바 지역 4개 마을은 전혀 복음이 한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마을들이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이 마을들을 들어가 사역하기 시작하였는데 감사하게도 12월에 35명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바닷물 속에서 붙잡고 얼마나 우시는지...이렇게도 그 영혼들이 간절히 갈망하였기에 주님께서 이들의 주님 자녀됨을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으며, 2019년에도 서솜바 지역에 더욱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하여 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부 숨바 지역 산속마을 갈보리 교회에서 22명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숨바섬 2018년 마지막 사역으로 빨루뵘장 산속 땅끝마을인 갈보리 교회에서 어른 세례 9명, 유아세례 13명, 입교 6명, 성혼축복 8쌍을 하면서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 집에서 가장 좋은 옷들을 입고 산 길을 걸어서 오는 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도록 흘러내렸습니다. 2018년 한해 동안에만 숨바섬을 12번 들어와 사역을 하였고, 정말 많은 산들을 걸어 넘고 넘어 들어가서 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폭우 속에 짙게 젖기도 하였고, 뜨거운 퇴약별 속을 건으며 산을 넘어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헉헉거리기도 하였고, 노숙을 하면서 새로운 마을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였는데....이렇게 2018년 마지막 사역을 이 산속 깊은 곳에서 세례식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가슴이 뭉클거리고 벅차 올랐습니다. 이제 2019년도 더욱 동숨바섬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건축 중인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카르타 한센인 마을 사역과 한센인 의족 6개를 후원을 하였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한센인 자녀 120명, 한센인 극빈자 30여명을 섬기었습니다. 또한 금번 12월에는 귀한 후원으로 한센인 6분에게 의족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더욱 감사하였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기에,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2019년에도 한센인 자녀들과 한센인 분들을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말랑 UKCW 기독교종합대학 성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UKCW 기독교종합대학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모여 12월 21일 성탄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사실 UKCW 대학이 아직도 법정소송 중에 있고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UKCW 대학이 말랑에서 운영되고 있음이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에 더욱 더 감격하며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9년에도 주님께서 UKCW 대학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UKCW대학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숙명여대 봄학기에 편입 보내는 2명의 UKCW 대학 학생들의 새로운 학업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새로 개척을 시작한 중부 숨바섬 사역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새로운 기도제목이 생겼습니다. 지난 12 월 중부 숨바 Anawai 라는 마을을 들어갔었는데 그 마을에는 약 200여명이 살고 있었고 얼마나 산속 깊은 마을인지 학교도 전혀 없어 마을사람들 중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사람이 3 명 밖에 되지 않았고 교회도 전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받아들이는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에 또 다시 교회 건축을 위한 소망이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동부 숨바 지역에 15개 교회를 건축하면서, 각 교회들이 큰 도로변이나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산속 깊은 곳에 있다보니 교회 하나 하나 건축하는 것이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재정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특별히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 건축자재들을 사람이 짊어지고 2-3 시간씩 산을 넘어 운반해야 되기에 교회 하나 건축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려야 되기에, 이제 더 이상 교회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는데.... 금번 중숨바 Anawai 마을을 보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200여명의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사람 모두가 성령 안에서 뒤집어 지게 되기를 가슴에 품고 중부 숨바 지역에 새로운 사역을 2019년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 바랍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더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주님만이 길이시요 생명이시요 진리이시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 순간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2019년 1월 2일

인도네시아 함춘환, 김성혜 선교사 드림